

## 경축년 로고 발표



방갈로르 성모 방문 관구 수녀들은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에, 지난 75년간 살아있는 유산이었던 백금 경축을 맞이했습니다. 미사 후 성모 승천 관구와 방문 관구 수녀들을 대표하는 이들이 코스펠드 십자가 주변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성녀 줄리의 노래를 부른 다음, 메리 체타나 수녀가 새 로고를 드러내며 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로고 디자인에 기여한 모든 공동체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경축 로고의 설명입니다.

1. 75라는 형상은 우리가 희망과 감사로 나아가는 동안 지난 수년간의 모든 기쁨과 도전을 품고 있음을 의미한다.
2. 동그라미는 성모 승천 관구와 성모 방문 관구의 헌신적이고 사심없는 봉사의 상징으로서 선교사적 여정과 지난 75년의 성장을 의미한다.
3. 세 가지 색상의 인도 지도는 우리나라, 인도의 생동감과 모든 선과 고귀함을 흡수하는 오랜 아름다움과 지혜를 나타낸다.
4. 인도의 심장부에 있는 불꽃은 소외된 이들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선교사적 열정으로써 새로운 지역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도전한다. 우리는 시대의 징표를 상상력이 풍부한 희망으로 감싸 안는다.
5. 해바라기는 햇빛을 바라고, 우리는 줄리 어머니가 그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기를 바란다. 데이지는 창설자 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와 공동창설자 마리아 익나시아 수녀의 겸손, 단순함, 애덕을 나타낸다. 여섯 개의 푸른 잎은 우리의 단체적 의식 속에 신선하고 푸르게 남아있는 여섯 명의 초창기 수녀들을 상징한다.

이 감사의 경축에 함께 하고 인도에서의 사명에 대한 하느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도록 수녀님들 모두를 초대합니다.